

그린바이오 육성 초석 놓는다

익산시, 이달 내 함열농공단지서 착공식 개최... 총사업비 265억원 투입

익산시가 미래 농생명 분야의 핵심 성장동력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초석을 놓는다.

익산시는 농생명 분야를 이끌어 갈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의 행정 절차 이행을 마치고 오는 12일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6일 밝혔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은 2021년 익산시가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며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으나 부지 용도변경과 지체비 상승 연약지반 보강에 필요한 공사비 증액 등 여러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된 바 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합열읍 합열농공단지내 동지를 뜬다. 이번 사업에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65억여 원이 투입되며, 조성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 면적 7,219㎡다.

이 건물에는 입주 벤처기업의 사무공간과 회의실, 연구·실험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기업과 함께 연구·투자기관이 입주해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의 요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캠퍼스가 그린바이오 벤처기업의 창업 성장을 전폭 지원하는 혁신거점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이곳에서는 창업 상담과 사업과 자금 지원, 컨설팅 서비스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단계를 다룬다. 시는 앞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린바이오'는 농생명 자원에 생명공학이 더해진 개념이다. 식물 백신과 기능성 농산물, 대체식품, 화장품 원료 등이 그린바이오의 대표적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준 높은 그린바이오 관련 연구 기반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있는 익산은 그린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최적지로 꼽힌다. 익산에는 국내 식품산업을 진두지휘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식품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전북대 인공동물전염병연구소가 자리해 있다.

시는 이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이 정부가 집중하는 미래 농생명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익산에 추진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사업들과의 연계도 주목할 만하다.

시 관계자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익산시가 바이오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농식품 분야의 성장동력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시립과 기업이 모여드는 익산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고조선 남천부터 백제 천도까지, 한민족 원류로서 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한다.

‘익산, 그 가치를 다시 찾다’

한(韓)문화의 발상지... 가치 정립 전문가 포럼 진행

익산시가 고조선 남천부터 백제 천도까지, 한민족 원류로서 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한다.

시는 지난 5일 저녁 익산시청에서, '한(韓)문화의 발상지 익산의 가치 정립 전문가 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고조선의 남천을 시작으로 마한의 성립지, 백제의 천도지 등 익산이 굵직한 대(大)한(韓)의 원류이며 삼한의 중심지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와 현재상황에 맞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우석대 교양대학 조법종 교수의 '한(韓)문화 역사 사실 인식에 대한 문헌, 고고자료 검토를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문헌자료에 나타난 고조선 준왕의 남래와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 삼한정통론으로 본 마한의 위상, 한 문화의 발상지로서의 익산이 가진 가치를 활용한 향후 방안 등을 자세히 다루었다.

발제에 이어, 원광대학교 최원규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자유토론은 한국고대사학회장

이자 공주대학교 사회과 정재운 교수, 원광대학교 역사교육과 이다은 교수, 전북문화재연구원 김규정 원장 등 역사학계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고견이 이어졌다.

자유토론에서는 한(韓)문화의 발상지로서 익산의 가치를 정립하고, 시민과 공유하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부각됐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계승지로서 익산의 가치의 공론화가 필요하며, 현지에서 실현 가능한 발전 방안과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나아가길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관련 연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학술행사 개최, 시민 지역사회 참여와 관심 유도를 위한 마한 시민축제와 시민 아카데미를 통한 대중화, 한(韓)의 원류로서의 익산을 부각할 수 있는 '시민의 날'의 재조명, 마한역사문화 총서 간행 등 지역사 교제 간행, 젊은 세대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다채로운 제안이 도출됐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미국 푸에블로시와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교육·문화·관광·경제 분야 등 다방면 교류와 협력 약속

군산시는 6일 미국 푸에블로시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호 교류 의향서 체결은 상호간 화상 회의(비대면)로 진행됐으며 시 대표로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시의장, 국제관계 명예대사 등이 참석

했다. 푸에블로시는 시장 재메도시위원회 위원장 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해 양도시간의 우호적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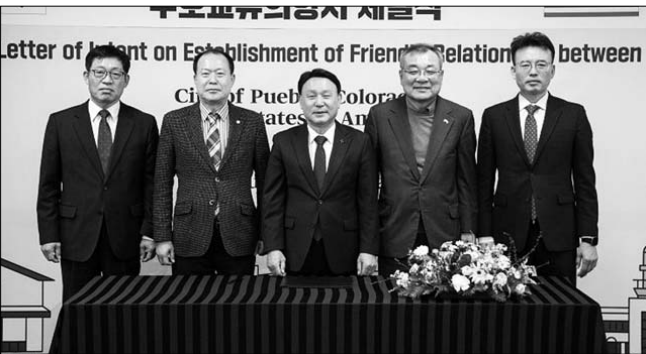
앞서 지난해 9월 푸에블로시 니콜라스 A. 그레디시 시장을 비롯한 10여명

의 시장단이 군산의 풍력 관련 산업체를 방문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강 시장은 "이번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도시가 상호 존중과 이익을 바탕으로 긴밀한 교류 관계를 정립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군산시와 푸에블로시 간에 교육·문화·관광·경제 분야 등 다방면의 교류와 실질적인 우호 관계를 구축해 나가지"고 다짐했다.

그레디시 푸에블로시장은 "이번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식은 군산시와 푸에블로시 간의 지속적인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작년 가을 한국 방문때 맺은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푸에블로시는 인구 11만명 규모의 미국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카운티 내 도시로서 철강 및 풍력·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 도시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는 6일 미국 푸에블로시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익산시, 2024년 익산형 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익산시가 2024년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익산시가 6일 노·농·사·민·정이 함께하는 2023년 전북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의를 개최하고, 2024년 사업 추진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2024년 익산형 일자리 사업은 참여기업인 하림산업 및 하림푸드(1,116.7억 원 투자)와 154명의 신규고용을 목표로 한다. 또한, 농산물 수급안정 사업 확대운영, 공동물류 및 공동마케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 운영 등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날 상생협의회는 지난 9월 제정된 '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를 근거로 새롭게 위촉된 상생협의회의 신규 20명과 실무위원회 위원들의 참석 하에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상생협의회 신규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3년도 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으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지역 소식통

군산시 청년들 창업페스타 개최

군산시는 청년들(센터장 김연중) 창업센터가 오는 9일 청년들에서 '2023년 군산 청년들 창업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창업 활성화와 관료개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시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부스와 이벤트도 마련될 예정이다.

주요행사는 △지역창업가의 생생제품 홍보와 판매를 위한 팝업부스 10개소 설치·운영, △에비창업가 발굴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10개팀이 겨루는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가를 위한 마케팅, 세무상담, 사업계획서 작성 등 1:1 전문가 멘토링이 운영되며, 와인잔 마카 페인팅 등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팝업부스에 참여하는 10팀의 창업가 중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개 기업에게는 인플루언서 단독 홍보지원과 2024년 롯데몰 팝업스토어 행사 우선 참여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시, 매주 목요일 여권 야간창구 운영 큰호응

군산시 야간 여권민원 창구는 일과시간에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을 시작.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군산 시청 1층 여권민원관에서 여권 발급 신청 및 교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야간 여권민원창구 운영 실적은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총 562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 종식선언 이후 크게 늘어 11월 현재 총 1,888건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창구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등을 준비해야 하며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은 법정대리인 동의서(창구 비치)를 추가로 제출하여 법정대리인(친권) 있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군산=김판근기자